

장흥군-전남관광재단, '무비로드' 관광상품 개발 업무협약

옛 장흥교도소 콘텐츠 발굴·운영 위한 협업체계 구축 무비로드(남도 영화길) 포함 관광상품 기획 및 브랜드화

장흥군과 전남관광재단이 7일 옛 장흥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이진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현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옛 장흥교도소 콘텐츠 발굴과 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무비로드(남도 영화길)' 브랜드를 선전해 관광상품 기획 및 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주민사업체-관광기업-여행사로 이어지는 연계 체험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에 합의했다.

현재 옛 장흥교도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의 감옥 실물 촬영지로, 연간 20여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색과 치유의 갭생 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감옥테마공원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옛 장흥교도소를 거점으로 한 주제별 권역별 무비로드(남도 영화길) 조성은 물론, 교도소 내 감병영화제 등 교도소 특화사업과도 연

결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옛 장흥교도소는 앞으로 장흥 관광의 총체적 집합소 역할을 하며 전라남도 여행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장흥군을 영화 촬영의 메카로 만드는데 이번 전남관광재단과의 협력이 그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2019년 (옛)교도소 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유류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현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 단장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조성사업 중 6권역 '남도바닷길' 사업관리단의 단장과 (재)지역문화진흥원을 역임한 문화통으로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서중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4억 원 확보

특산물 판매장·휴양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예정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 서중어촌체험휴양마을이 2023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도화사업은 체험객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국비 2억 원, 군비 1.6억 원,

자담 4,000만 원)이다. 체험 안내소, 체험장, 숙박시설, 특화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특히 서중마을은 금년 내로 식당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안내소 및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기존 펜션을 새단장하고 기반 시설을 추가 마련해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면서 "강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서중마을의 바다 풍광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해양인명구조 인력 양성'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선정

사업비 1억 확보...160시간 교육·훈련 실시, 취·창업까지 지원

완도군은 '2023년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해양 인명구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도와 시·군이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해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 등에 필요한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난 2월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미취업자와 예비 창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양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할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요원, 해양리조트·위더파크·수영장 등 수상 레저 시설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할 수도 있고, 스킨스쿠버 교육 체험장, 스킨스쿠버 등 수상 레저 분야 창업도 가능하다.

특히 5월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명구조 요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1개 마을 신규 선정

3년간 총 1500만원 지원...관내 159개소 으뜸마을 만들기 '박차'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해남군 51개 마을이 신규 으뜸마을로 선정되었다.

해남군은 이번 신규 마을 51개소와 함께 2년차 으뜸마을 62개소, 3년차 으뜸마을 46개소까지 총 159개소가 으뜸마을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는 사업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비의 1/10 범위 내에서 간식비를 제공한다.

신규 마을은 2025년까지 3년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매년 2~3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해 2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한다.

한편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다.

상사업비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발굴한 으뜸마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단순히 마을에 꽃나무를 심고 물주는 경관개선 사업이 아니라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해남군 515개 마을이 모두 으뜸마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오는 6월말까지 여성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이 6월말까지 여성플라자 교육장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대비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플라자 상반기 프로그램은 총 5개 과정으로 교육 기간은 최고 4개월 과정이며, 자격증 취득반과 취미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반은 바리스타 과정이며, 취미반은 ▲홈패션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정리수납 ▲생활요리 등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반을 개설, 농어업인과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에도 적극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되는 정리수납 등 취미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